



고창, 김치산업 메카로 육성

전북자치도,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 본격화
AI·로봇 활용한 스마트 농업 접목... 고부가가치 창출
고창군·대상과 협약 후 기술 이전·생산 인프라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국가예산 확보 공동 대응 및 특례 발굴 등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정책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7개소 중 하나인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정밀농업,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절임배추·양념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고창군, 고창식품연구원, 지역 배추 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 △고창군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 조직화 방안 마련 △AI·로봇을 활용한 작황 예측 매뉴얼 구축 및 적용 △김치 원료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및 발효농기계화 확대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치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창군 내 봄배추 재배 확대 및 도내 동부권(진안 등) 준고랭지 배추, 인근 부안·정읍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은 올해 1월 대상(주)과의 업무협약 이후, 생산·수확·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기

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창산 최고급 배추 원물 및 절임배추 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농가 및 식품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 3월 6일 대산면(김치 원료 공급단지), 공음면(김치 양념·발효식품 가공단지), 부안면(김치산업지원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전라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창군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김치특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고창의 산·들·바다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1차 원료 생산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6차 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해 고창이 김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19일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완주군 모악산 축구장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산불예방캠페인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봄철 산불, 도민과 함께 막는다

도,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대규모 산불예방 캠페인
의용소방대, 화재 피해 주민 위한 기금 3000만원 전달 온정 더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9일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완주군 모악산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 예방 캠페인과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 주요 등산로 13곳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이 동시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 물티슈와 생수를 배부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8,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도내 화재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 426건 중 60%(256건)이 봄철(3월~5월)에 집중됐으며, 주요

원인으로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불씨·불꽃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3%(396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등산객 및 산행 인접 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캠페인에서 "봄철은 작은 부주의의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전북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은대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한마음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3월 19일)'은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됐으며, 전북지역에서는 14개 시군 8,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며, 재난 예방과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정부혁신 소통 모임
'새바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새만금청 내 정부혁신 소통 모임인 '새바시'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바시'는 '새만금청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짧은 강연과 토론의 형태로 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 개최해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인기와 호응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월 정례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새만금청 주요 간부 및 직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지원단 윤주석 사무관이 일일 강연자로 나섰다.

임주기업 지원 담당인 윤주석 사무관은 '새만금, 적극적 기업지원으로 비상할 동력을 갖추다'라는 주제로 기업지원단의 주요 업무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 자리에서 "새바시와 같은 소통 모임을 통해 조직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해 새만금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교육발전 주역을 뽑습니다'

전북교육청, '제1회 전북 교육발전대상' 후보자 공모
수업 혁신·교육 혁신 등 4개 부문으로 각 1명씩 선발
내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공모... 교육감 표창 등 특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1회 전북 교육발전대상'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공모하는 전북 교육발전대상은 전북 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인물을 발굴해 노고를 기리기 위함이다.

공모 부문은 △수업 혁신 △혁신 경영 △교육 혁신 △교육협력 등 4개 분야로, 부문별 각 1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며, 공공기관·지자체·시민단체·법인·개인 추천 및 본인 지원도 가능하다.

추천 및 지원 대상으로는 AI와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수업 혁신을 선도한 교직원, 혁신 경영으로 성과를 이루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 기관장, 교육봉사·기부 및 의정활동 등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가족 또는 교육투자자와 교육활동 지원 실적이 뚜렷한 도민이다.

전북교육청은 심사의 공정성, 전

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방문 실사,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오는 5월 23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표창, 전북 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 전북교육 홍보대사 위촉과 200만원의 지원금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알림존을 확인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 '전북 교육발전대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분들의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